

한국 전통경관에 대한 문화재 유형화 시론

A Introductory Approach on the Traditional Landscape for Cultural Heritage Type

金德鉉(경상대학교, dukhyun@gnu.ac.kr)

1. 문화의 시대와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향유

경제, 산업, 관광, 여가, 위락 활동의 중심에 '문화' 개념이 자리 잡는 추세가 보인다. 소비활동에서는 상품 구매로부터 정신적 충족에 초점을 두는 향유 구매를 의미하는 장소적 소비, 시간적 소비, 문화적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 문화적 향유가 여가활동과 결합하고, 여가활동의 중심에는 장소적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장소적 소비는 이벤트와 역사적 유산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향유를 포함하는 것이 문화관광의 내용이 되고 있다.¹⁾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은 자연경관을 문화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문화대중의 확대와 교통 통신, 영상 및 출판 미디어, 사진 기술 발전이 가져온 접근성 제고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장소적 소비,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향유 추세에 대응하는 제도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자극받아, '경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²⁾ 경관에 대한 문화적 향유 권리가 법체계 속에 규정되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의 세기'에 경관이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표상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며, '문화의 시대'에 문화적 상징성과 정체성이 경관을 통해 시각화된 미학적 이미지로 읽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문화유산으로서 경관 문화재

현재 한국의 문화관광은 역사적 유적지가 중심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경관 자체는 문화재 지정 대상이 아니다. 경관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으로 '명승'이 있다. 명승 자체도 천연기념물과가 관장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명승'과, 사적과 관할의 복합유산으로서 '사적 및 명승'으로 나누어져 "주변적" 위치에

1) 최근 많이 논의되는 '생태관광', '지리관광'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향유로 포함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가칭) 경관법을 제정한다." -건설교통부, 2005년 3월7일자 보도자료;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단입법)을 문화재기본법, 유형문화재 및 자연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등 6개법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다.-문화재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최근 '명승제'를 천연기념물과에 신설하였다.

있다. 2005년 일본은 기념물로 분류되는 '명승' 이외 '문화적 경관', '전통 건조물 군'으로 경관문화재를 문화재의 유형으로 채택하였다. 한국도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경관 문화재를 유형화하고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경관이 중심이 되는 산간 계곡의 전통적 여가경관인 洞天九曲 경승지는 문화유산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위락공간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적인 상징적 경관을 형성해온 읍치의 진산과 전통촌락의 자연경관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이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도 방치되고 있다. 자연과 공생하는 조화로운 삶의 이루어지는 전통적 생활 경관들은 낙후된 시골풍경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경관 문화유산은 생활경관·권위경관·여가경관 등 경관 문화재 범주로 유형화하여, 자연과 일체화된 삶이라는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경관미학을 재발견할 수 있다(표 참조).

자연과 일체화된 한국의 전통 경관 문화재 유형

유형	상징성	장소 이미지	경관 구성
생활 경관 ³⁾	자연과 공생하는 삶	人爲를 최소화하고 자연에一體화된 風景	마을 입지, 건축, 경지(등고선경작, 다랑이논), 숲(藪), 수리시설과 제방(淤, 저수지), 독살(石箭)
상징 경관	자연의 인간화	사람을 '하늘'에 연결하는 生氣의 淵源으로서 山	鎮山, 主山, 祖山, 案山, 朝山, 造山
여가 경관	인간의 자연화	樂山樂水의 境地	洞天九曲, 八景, 蓮池, 庭園

3. 경관 문화재의 구성 요소

장소와 자연은 스펙터클(장관, 경치)로서 시각화되지만, 내러티브(설화, 설명, 문학작품 등)에 의하여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강화되고, 재구성되어서 체험으로 기억된다. 자연적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광객은 목도되는 시각적인 스펙터클과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어진 내러티브를 결합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장소 이미지와 '관광객의 시선'을 얻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시각적 스펙터클 위주로 평가하자면, 한국의 자연경관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장대한 자연풍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토는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좁은 공간에 불과하다.

자연적 문화유산의 단절과 경승지 탐방 문화 빈곤의 원인은 좁은 국토에 있지 않다. 우리 조상들이 수 천 년 누려온 자연 미학, 산수관, 산천에 얽힌 선인의 얘기 등 풍요한 내러티브로부터 현대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가시간과 소득을 문화적 향유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문화대중은 층이 두텁다. 인터넷 강국이며 마이카와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된 한국은 경관에 대한 문화적 향유의 기술적 조건도 충분하다.

3) 일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경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문화재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있다.